



'꽃길 따라 걷기명상' 현장

지난 4월 29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는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주최한 '전국수행투어-꽃길 따라 걷기명상'이 개최됐다. '상생·화합·평화'를 주제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는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하며 걷기명상을 체험하고자 하는 불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아빠(정우식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와 함께 참가한 정화영(6)양의 이야기로 재구성해봤다.



지구와 친구됐어요

'상생·화합·평화' 주제에 500여 불자 임진각서 걷기명상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영이에요.

어제 엄마가 소풍간다고 말해줘서 너무 설렐었어요. 늦잠 자야하는 일요일이지만 일찍 눈을 떴지 뭐예요. 깨끗이 씻고 예쁜 옷 입고, 가방에 간식처럼 비눗방울 넣어기도 넣어서 집을 나왔어요. 조계사에서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넓은 잔디밭이 펼쳐진 공원이었어요. 참가신청서를 적고, 하얀 티셔츠도 받아서 입고, 행운권도 응모함에 넣었어요. '부처님, 제가 선물 받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모이자 108배를 한데요. 어린이 범회 때 3배는 많이 해 봤지만 108배는 아직 못해봤는데, 잘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옆에서 한 번, 두 번 절을 따라 했어요.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절을 열다섯 번이나 했답니다. 저의 최고 기록이에요. 제 옆에서 절을 한 최정식(76) 할아버지는 "108배를 하고 나니 허리 아픈 것이 다 나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절을 하면 아픈 몸도 낫는 걸까요?

절을 마치고 나니 점심공양 시간이예요. 밥이랑 무 장아찌가 든 도시락이 오늘 점심식사예요. 혹시 '빈 그릇 운동'이라고 아세요? 밥이나 반찬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음식을 버리지 않아서 지구도 안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밥이랑 반찬을 싹싹 다 먹었답니다.

깨끗해진 도시락을 분리수거 하고 나니 묘운 스님이 재미있는 게임을 가르쳐줬어요. 제가 아주 이쁠 때 했던 '도리도리' 랑 '짹짹'도 하고, 옆에 있는 할마랑 꼭 안아보기도 했어요. 참! 제가 기다리던 행운권 추첨도 했어요. 아깝게

저는 하나도 못 받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품을 많이 받으셔서 기분은 좋았답니다.

드디어 마가 스님이 걷기명상을 시작했어요. 빨강 파랑 노랑 색깔 깃발로 조를 나눠서 줄을 썼는데 전 아빠 뒤에 꼭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걷기명상을 하려면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어야 하는데, 혹시 뭉개기가 발바닥을 찌르면 어찌죠? 개미를 밟아버리면 어찌죠? 맨발로 잔디를 밟아보니 간지럽기도 하고 조금 따갑긴 해도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스님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걸었어요. 뛰어들 땀 났는데 바람이 머리카락을 간질이는 게 느껴져요. 짹짹 내려찍는 햇살도 얼굴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마가 스님이 "걸을 때 발걸음에 정성을 다하라"고 하셨는데, 아뵐 정말 그렇게 걷는 것 같아요. 발도 천천히 내밀고 잔디도 조심스럽게 밟아요. 저도 아빠를 따라 해봤는데, 좀 어려워요. 한참을 걸어 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 한달음에 뛰어갈 정도밖에 안 왔어요.

한 시간 보다 조금 모자라게 걷기명상을 하고 다시 신발을 신었어요. 최신식(80) 할아버지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맨발로 걸어 봤다"고 하세요. 맨발로 걸으면 자연이랑 더



마가 스님의 지도로 맨발로 걷기명상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사진 맨 위) 처음 만난 도반을 안아주며 서로 자비의 마음을 나누는 레크리에이션 모습(위) '꽃길 따라 걷기명상'은 상생과 화합, 평화를 위한 108배로 시작했다.(왼쪽) 부모님과 함께 걷기명상에 참가한 정화영양(아래)



친해지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오늘 자연이랑 지구랑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다음엔 여러분들도 같이 걷기명상해요. 꼭이요!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백재원 기자

지역 신도회 역량 강화 계기...접근성 등 문제점 지적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주최한 '전국수행투어 꽃길 따라 걷기명상'은 4월 22일 마곡사, 28일 부산 해운대 동백섬공원, 29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5월 5일 평창 월정사에서 각각 개최됐다. 행사는 각 지역 신도회와 사찰이 주관해 치렀다는 점에서 지역 신도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지적됐다. 임진각 행사 참가자는 500여 명 정도. 같은 날 열린 서울시 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의 '한강 사랑 시민 걷기 대회'에 1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 서울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산 동백섬공원에서 열린 걷기명상의 경우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 관광객들도 행사에 참가했던 점에 미뤄보면, 앞으로 한강시민공원이나 도심 공원에서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장소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주요 사찰이나 단체에서 신청한 사람들 외에 일반 참가자나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적었던 점도 아쉽다. 이상근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내년에도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수행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걷기명상은 5월 19일, 순환도로건설과 순정철달 공사로 물살을 앓고 있는 가야산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2006 대한민국 여성유망도 우수상품 선정(한국일보)
 2006 베스트 이노베이션 기법&브랜드 선정(스프링 서울)
 특별한 특별한 것

MASTERPIECE OF THE WELLBEING COLLECTION

아 수 록 별 안 선 물

마·그·토·린

다가오는 5월 부모님과 은사님께 드리는 효도, 보은, 감사, 사랑의 선물을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로 준비하세요!
 이제, 소중한 분께 건강을 먼저 선물하세요!

Magtorin Jewelry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는 스테인레스 (또는 신주) 안쪽에 페라이트 자기방울을 첨가하고 울트라이 생성되는 토르마린 실리코넬을 결합한 후 원적외선 에너지를 포함한 아이디어 퓨전 웰빙 제품으로 착용감이 좋고 디자인이 고급스러우며 코디하기가 쉽다.

단체 주문시 루고 혹은 미니컬 색인 가능
 단, 제품당 인포메이션이나 좌표기기가 아닙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마그토린을 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제품 사이즈-남(아)-
 S : 17.5cm(16.5cm)
 M : 18.5cm(17.5cm)
 L : 19.5cm(18.5cm)
 주문시 사이즈 선택

제조 및 판매: 서원SNKO | 제품문의: 02-568-1117 | 국민은행: 443101-01-057876(예금주:최인경)

www.magtorin.com

- MT 204T ₩86,000
- MTB 207G ₩98,000
- MT 203G ₩79,000
- MTB 206T ₩98,000
- MT 205G ₩86,000